

스테보-몰리나, 침묵 깨고 빅쇼

사커 브레이크 | 수원-서울 하반기 대반격 원동력은 이적생

여름 이적시장서 동지 옮긴 스테보 최근 5경기서 4골...득점 가뭄 해소

몰리나 전남전까지 3경기 연속 공격P 데안과 콤비플레이로 상승세 이끌어



지난해 우승팀 FC서울과 만년 우승후보 수원삼성의 거센 반격이 시작됐다. 서울은 13일 K리그 21라운드 전남과의 경기에서 몰리나의 결승골로 1-0으로 승리하며 3위로 올라섰다. 수원은 같은 날 경남과의 원정경기에서 스테보와 콤비플레이로 2-0으로 이겨 6위로 점프했다. 전반기까지 중하위권에 머물렀던 서울은 최근 6경기에서 5승1무, 수원은 4승2패의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상위권에 가세해 본격적인 순위다툼을 벌이고 있다. 1위 전북과 2위 포항이 앞서나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수원이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어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빅4'(전북, 포항, 서울, 수원)의 우승경쟁체제가 형성될지 관심이 쏠린다.



스테보

몰리나

본에 최근 정규리그 9경기에서 6승3무로 단 한번도 패하지 않았다. 덕분에 하위권에 머물렀던 순위가 3위까지 수직상승했다. 지금의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조만간 선두권 경쟁에도 가세할 기세다.

●해결사들의 부활로 상승곡선 그리는 수원

수원은 해결사들의 부활과 함께 팀 성적도 좋아지고 있다. 매 시즌 후반기에 강한 모습을 보였던 수원이 대반격에 나섰다.

전반기에서 기대만큼 활약하지 못한 염기훈은 최근 6경기에서 1골5도움을 올렸다. 이상호도 지난 6경기를 치르며 3골 2도움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일조했다. 여기에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영입한 스테보는 5경기에서 무려 4골을 책임졌다. 특히 스테보는 전반기까지 용병들의 득점포가 터지지 않아 머리를 앓았던 코칭스태프의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줬다.

수비도 한층 안정됐다. 최근 6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3차례였다. 이전까지 원정경기에서 수비가 무너지는 모습을 자주 드러냈지만 경남전에서는 단 1골도 허용하지 않은 등 수비조적력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 포백에서 스트리백으로 수비전술을 전환한 것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

●몰리나-데안 콤비로 위용 되찾은 서울

서울은 데안과 몰리나의 맹활약을 통해 최근 K리그에서만 5연승이다. 제파르프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팀을 떠난 이후 데안과 몰리나의 콤비 플레이가 더 빛나고 있다.

데안은 7월에 열린 경기에서 K리그 정규리그 4경기에서 6골1도움을 올리며 서울 상승세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몰리나는 데안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전남전까지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팀에 승리를 안겼다. 전남전에서는 데안의 패스를 받은 몰리나가 골을 성공시켰다.

서울은 데안과 몰리나가 번갈아 활약한 덕



14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 21라운드에서 성남 김성환(오른쪽)이 울산 공격수 김신욱의 헤딩에 앞서 머리로 볼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 | 박희용 기자 inphoto@donga.com 트위터@seven7sola

에멜톤 1골 1도움...성남 홈 10경기 무패행진

성남 일화가 안방에서 갈길 바쁜 울산 현대의 발목을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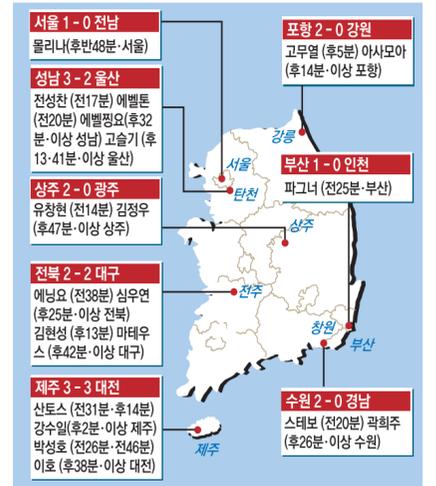
성남은 14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1 K리그 21라운드 울산과의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린 용병 에멜톤의 활약으로 3-2로 승리했다. 홈 10경기 연속 무패행진(5승5무)을 내달린 성남은 시즌 5승째(7무9패)를 기록하며 14위를 지켰다. 6강권 진입을 위해 승점 3이 절실했던 9위 울산(8승4무9패)은 2연패에 빠졌다.

성남은 좌우 측면에서 에멜톤과 에멜정요

의 빠른 돌파가 호조를 보인 덕에 울산을 잡았다. 전반 17분 전성찬의 골로 기선을 잡은 성남은 3분 뒤 조동건의 크로스를 에멜톤이 가볍게 마무리해 2골 차로 달아났다. 후반 들어 울산 고슬기에게 1골을 허용한 성남은 후반 32분 역습 상황에서 에멜톤의 패스를 받은 에멜정요가 추가골을 넣어 승리를 예약했다.

울산은 후반 41분 고슬기가 다시 득점포를 가동하며 맹추격했지만 승부를 바꾸지 못했다. 성남 | 최용석 기자

K리그 21R 골잡이들



- 1 섬세한 리더십...선수들 신뢰
- 2 이름값 대신 실력 위주 기용
- 3 대화 제일주의...괴리감 없어

4위 부산 안익수의 3가지 힘



부산 축구에 밝이 듣고 있다. 장장한 강호들을 뒤로 하고 10승5무6패(승점 35), 어느덧 K리그 4위까지 순위가 뛰었다. 13일 인천을 홈에서 1-0으로 잡고, 최근 6경기 동안 5승(1패)을 쓸어 담았다.

시즌 초반만 해도 불안했다. 3무3패. 하지만 이후 연패가 없었다. 승점을 착실히 쌓아올렸다. 화려함을 버리고 성실과 팀 정신을 무기로 삼은 결과다.

안익수 감독(사진)은 아이들(안 감독은 선수들을 '우리 아이들'로 부른다!)에게 세밀한 가르침을 전수한다. 대개 감독들은 큰 틀에서 지시하고, 코치들에게 세부 훈련을 맡기지만 안 감독은 그렇지 않았다.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맞춤형 전술을 마련했다. 훈련 장비를 직접 옮기는 것도 그의 몫.

안 감독의 지시에 대한 아이들의 믿음은 절대적이다.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세세히 알려준다. 국내 최상의 조직력이 나오는 건 당연지사.

이름값이 아닌, 실력 위주의 선수기용도 눈에 띈다. 누가 투입돼도 제 역할을 한다. 인천전 때 출전한 최광희(27)와 유지훈(23)이 대표적인 케이스. 이름값 보다는 실력으로 그라운드를 밟았다.

현장과 구단 간 괴리감도 사라졌다. 안 감독은 제자들 뿐 아니라 구단의 입장에도 귀를 기울인다. 대화가 많다 보니 오해의 소지도 적다. 선수들과 프런트는 안 감독과 자주 미팅을 하며 서로의 생각들을 공유한다. 부산 관계자는 "모든 게 바뀌고 있다. 부산에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아져 올해 1차 목표로 정한 6강 플레이오프 진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며 밝게 웃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yoshike3

강한 남자!!

20대의 강력한 힘! "뉴 맨"!

NAVER에서 뉴맨 을 검색하세요
D.J.M에서 뉴맨 을 검색하세요

목적 번호 10-0756243 호

본제품은 의료기기기 아님

평상시 사이즈	뉴맨 호수
6.50이하	주문제작
6.5cm	1호
6.75cm	2호
7cm	3호
7.5cm	4호
7.75cm	5호
8cm	6호
8.25cm	7호
8.5cm	8호
8.75cm	9호
9cm	10호
9.25cm	11호
9.5cm	12호
9.75cm	13호
10cm	14호
10.25cm	15호
10.5cm	16호
10.75cm	17호
11cm	18호
11.25cm	19호
11.5cm	20호
11.75cm	21호
12cm	22호
12.25cm	23호
12.5cm	24호
12.75cm	25호
13cm	26호
13.25cm	27호
13.5cm	28호
13.75cm	29호
14cm	30호
14.25cm	31호
14.5cm	32호
14.75cm	33호
15cm	34호
15.25cm	35호
15.5cm	36호
15.75cm	37호
16cm	38호
16이상	주문제작

"뉴 맨" 국내최초 3개 부문 발명특허
㈜케이앤제이 스포츠가 개발한 '뉴 맨'은, 남성음경해면체로 최대치의 혈액을 빠르게 유입시키면서 행위 시 음경외피의 신경자극을 완화, 더 크고 강한 발기와 시간을 연장시키는 효능으로 특허청에서 3개 부문발명특허(제10-0756243호)를 획득하였습니다.

"뉴 맨"을 착용하고 주무시면
알려버렸던 새벽발기가 20대 때보다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관계 시
감쪽 놀랄 정도로 커지고 단단해져서 중간에 시들지 않습니다.

남자! 그리고 자신감!
출시 7년에 국내고객 30만 돌파, 일본, 중국, 지사 설립, 전 세계 20여개국 판매! 이제 한국과 전 세계 수십만의 남성이 '뉴 맨'과 함께 자신감 넘치는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당당한 남자의 힘! '뉴 맨'입니다.

"망설이는 시간만큼 손해입니다"
설마? 정말? 하는 마음에 망설이십니까? 정말입니다.
강한 남자의 꿈! 소망! 결정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디자인과 설계, 은 이온(Ag+)의 전기적 부하, 700가우스의 자기장, 천연자수정의 원적외선효과 등, 의학과 과학이 접목된 발명특허의 기술과 효능은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중국지사 T. 0433-286-5031
지사장 권대근

일본지사 T. 03-6278-9461
지사장 호시 고우지

* 일본, 중국 등 현지구매는 지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장안의 화제!

무엇에 쓰는 "물건" 인고?

힘차고! 활력있게!

남성용

- 식물에서 남성에게 좋은 성분만을 추출한 먹는 제품!
- 30-80대까지 힘차고 활력 있게!
- 미국FDA승인/무독성 검사됨!
- 식약청 심사기준 통과 미국직수입품!
- 낚치는 힘과 당당한 자신감!

여성용

난생처음 느껴보는 여자의 환희!

식약청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먹는 여성(性) 생활개선제 '핑크밸리'!
'핑크밸리'를 만난 당신! 이제 밤의 요부입니다.

1577-0139, 010-7533-3346